연암집 읽기 제5강 강의안

제5강 :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벗

1. 길 가는 사람이 나의 스승(북학의서北學議序)

- **暮登龍首山하야 候足下不至러니**

江水東來하야 不見其去하더이다

夜深泛月而歸하니 亭下老樹 白而人立일새

又疑足下先在其間也러니이다 (映帶亭賸墨, 答蒼厓[之五])

저물녘 용수산에 올라 그대를 찾았으나 오지 않았더군요.

강물이 동쪽에서 흘러오더니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습디다.

밤 깊어 달빛과 함께 돌아왔는데, 정자 아래 늙은 나무가 허옇게 마치 사람이 서있는 듯하기에, 난 또 그대가 먼저 와 그 사이에 서있는가 했다오.

- 1802년, 연암 66세에 선친의 묘를 포천으로 이장하려다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의 방해로 이루지 못함. 유한준은 젊은 시절 연암과 친하게 지냈으나 글쓰기에 대한 견해가 달라 사이가 벌어졌다. 그는 연암의 《열하일기》를 두고 **오랑캐의 연호를 쓴 책**이라고 비방하였다.

北學議序

學問之道는 無他라 有不識이어든 執塗之人而問之可也니 僮僕多識我一字면 姑學이라 汝恥己之不若人而不問勝己면 則是終身自錮於固陋無術之地也라

학문하는 방도는 다른 것이 없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길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물어보아야 한다. 어린 종이 나보다 한 글자라도 더 안다면 우선 배워야 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스스로 고루하고 학술이 없는 처지에 갇히게 될 것이다.

舜自耕稼陶漁로 以至爲帝히 無非取諸人이러시니 孔子曰

吾少也賤이라 多能鄙事라하시니 亦耕稼陶漁之類是也라 雖以舜孔子之聖且藝이사도 卽物而刱巧하고 臨事而製器하시면 日猶不足하고 而智有所窮이라 故舜與孔子之爲聖은 不過好問於人하야 而善學之者也라

순임금은 밭 갈고 질그릇 굽고 물고기를 잡던 때부터 임금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남에게 배우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공자도 "내가 어렸을 때 천했기 때문에 하찮은 일에 능한 것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 또한 밭 갈고 질그릇 굽고 물고기를 잡는 일이다. 아무리 순임금이나 공자 같이 성스럽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물에 나아가 곧바로 기술을 창안하고 일에 임박해서 도구를 제작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지혜도 궁할 것이다. 그 때문에 순임금이나 공자가 성인이 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좋아해서 잘 배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吾東之士 得偏氣於一隅之土하야 足不蹈函夏之地하고 目未見中州之人하며 生老病死에 不離疆域하니 則鶴長烏黑하야 各守其天하야 蛙井蚡田으로 獨信其地하야 謂禮寧野하고 認陋爲儉하야 所謂四民도 僅存名目하고 而至於利用厚生之具하얀 日趨困窮하니 此無他라 不知學問之過也라

우리 동방의 선비들은 구석진 땅에서 치우친 기를 타고 나, 발은 중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눈은 중국 사람들을 보지 못하며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제 나라 땅을 떠나지 않으니 학의 다리가 길고 까마귀가 검은 것처럼 제각기 천성을 그대로 지켜서 우물안 개구리나 밭의 두더지마냥 오직 제가 사는 곳만 믿어서 예는 차라리 촌스러운 것이 좋고 누추한 것을 검소하다고 여겨 이른바 사·농·공·상의 사민도 겨우 명목만 남아 있고 이용후생의 도구에 이르러서는 날로 곤궁해지고 있으니 이는 다른 까닭이 없다. 배우고 물을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긴 과오이다.

如將學問인댄 舍中國而何오 然其言曰 今之主中國者는 夷狄也라하야 恥學焉하야 幷與中國之故常而鄙夷之라 彼誠薙髮左衽이나 然其所據之地 豈非三代以來漢唐宋明之函夏乎며 其生乎此土之中者 豈非三代以來漢唐宋明之遺黎乎아 苟使法良而制美인댄 則固將進夷狄而師之커든 況其規模之廣大와 心法之精微와 制作之宏遠과 文章之煥爀이 猶存三代以來漢唐宋明固有之故常哉아

만약 배우고 물을진댄 중국을 놔두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지금 중국의 주인은 오랑캐이다."라고 말하면서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여 중국의 옛 법도와 함께 싸잡아서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저들이 참으로 변발을 하고 옷고름을 왼쪽으로 여미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어찌 삼대이래 한·당·송·명의 중국이 아니며, 거기에서 태어난 이들이 어찌 삼대이래 한·당·송·명의 유민들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법이 훌륭하고 제도가 아름답다면 당연히 오랑캐에게 나아가 스승으로 삼아야 할 터인데 하물며 그 규모의 광대함과 심법의 정밀함과 제작의 원대함과 문장이 찬란함이 여전히 삼대이래 한·당·송·명의 고유한 옛 법도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이겠는가.

以我較彼하면 固無寸長이어늘 而獨以一撮之結로 自賢於天下曰 今之中國은 非古之中國也라하야 其山川則罪之以腥羶하고 其人民則辱之以犬羊하며 其言語則誣之以侏離하야 幷與其中國固有之良法美制而攘斥之하면 則亦將何所倣而行之耶아 余自燕還하니 在先爲示其北學議內

外二編이라 盖在先先余入燕者也니

우리를 저들과 견주어보면 참으로 한 치도 나은 게 없는데도 오로지 한 줌의 상투를 가지고 스스로 천하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산천은 비린내와 누린내가 난다고 꾸짖고, 그 백성들을 개나 양이라고 욕하고, 그 언어는 오랑캐의 말이라고 업신여겨서 중국고유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까지 싸잡아 내쳐 버린다면 또한 장차 어디를 본받아 시행하겠는가. 내가 연경에서 돌아와보니 재선이 그의 북학의 내외편을 보여주었다. 재선은 나보다 앞서 연경에 들어갔던 사람이다.

自農蚕畜牧城郭宮室舟車로 以至瓦簟筆尺之制히 莫不目數而心較하니 目有所未至면 則必問焉하고 心有所未諦면 則必學焉이라 試一開卷하니 與余日錄으로 無所齟齬하야 如出一手라 此固所以樂而示余요 而余之所欣然讀之三日而不厭者也라

농사와 누에치기, 목축, 성곽, 궁실, 배와 수레에서, 기와, 대자리, 붓과 자를 제작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헤아리고 마음으로 비교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눈으로 충분하지 않은 게 있으면 반드시 물었고 마음으로 분명히 알지 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배웠다. 시험 삼아 한 번 읽어 보았더니 내가 쓴 일록과 어긋나는 게 없어서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하였다. 이것이 그가 참으로 즐거워하면서 나에게 보여주고 내가 기꺼이 사흘 동안 읽고 싫증내지 않았던 까닭이다.

噫라 此豈徒吾二人者得之於目擊而後然哉아 固嘗研究於雨屋雪簷之下하고 抵掌於酒爛燈灼之際를 而乃一驗之於目爾라 要之不可以語人이니 人固不信矣일새라 不信則固將怒我리니 怒之性은 由偏氣요 不信之端은 在罪山川

이라

아, 이것이 어찌 우리 두 사람이 눈으로 보고서야 그리 된 것이겠는가. 진실로 일찍이 비 뿌리는 집과 눈내리는 처마 밑에서 연구하고 술이 거나하고 등잔이 가물거릴 때까지 손뼉치며 이야기하던 것을 눈으로 한 번 징험한 것일 뿐이다. 요컨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믿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성을 낼 것이니 성내는 것은 치우친 기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믿지 않는 까닭은 그들의 산천을 꾸짖은 데 있을 것이다.

2. 멀리서 찾아온 벗(회우록서會友錄序)

- 이 글은 洪大容(1731-1783)이 편찬한 《간정동회우록(乾淨衕會友錄)》에 부친 서문
- 1781년 연암 45세 때 영천 군수로 있던 홍대용이 소 2마리, 공책 20권, 돈 200민(緡) 등을 보내 <열하일기> 저술을 격려.
- 1783년 연암 47세 때 홍대용이 53세로 죽자 음악을 끊었다.
- 噫라 其在世時에 已落落如往古奇蹟하야 有友朋至性者하니 必將廣其傳하야 非獨名遍江南하리니 則不待誌其墓以不朽德保也라(아! 그가 세상에 살아 있을 때 뛰어남이 마치 옛날의 기적과 같아 지극한 성품을 가진 벗이 있어 반드시 그를 세상에 널리 전할 것이다. 단지 그 이름이 강남에만 두루 전해질 뿐만이 아닐 것이니, 묘지에 쓰이기를 기다려 덕보의 명성이 썩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洪德保墓誌銘>, 홍대용의 벗 손유의(孫有義)에게도 보냄.
- 1787년 51세 때 아내 이씨가 죽자 절구20수를 짓고 그 뒤로 죽 혼자 지냄. 이 해에 큰 형 박희원(朴喜源)이 58세로 죽음. 시 <연암억선형(燕岩憶先兄)>을 지음.

我兄顔髮曾誰似 우리형 얼굴 수염 일찍이 뉘를 닮았던가

每憶先君看我兄 아버지 생각날 때면 우리형 쳐다봤지

今日思兄何處見 이제 형님 그리우면 어디에서 볼 것인가

自將巾袂映溪行 두건에 옷 걸치고 냇물에 날 비쳐보아야겠네 (映帶亭雜咏, 燕岩憶先兄)

- 형단영척(形單影隻), 몸뚱이도 하나, 그림자도 하나. 한유의 <제십이랑문(祭十二郎文)>에 나오는 말.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를 읽고 울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고, 이밀의 <진정표(陳情表)>를 읽고 울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며, 한유의 <제십이랑문>을 읽고 울지 않으면 형제간의 정을 모르는 사람이다.
- 屛營 : 李陵의 與蘇武詩에 屛營衢路側이라 나오지만 후세의 모작
- 滌除玄覽 能無疵乎《노자 제10장》 : 玄覽之疵를 滌除한다고 해석해야...
- 非先王之法服不敢服 非先王之法言不敢道 非先王之德行不敢行(《孝經 卿大夫)
- 吾聞觀近臣하되 以其所爲主하고 觀遠臣호되 以其所主라하니라《맹자 만장상》

- 一簞食와 一豆羹을 得之則生하고 弗得則死라도 嘑爾而與之면 行道之人도 弗受하며 蹴爾而與之면 乞人도 不屑也니라 萬鍾則不辨禮義而受之하나니 萬鍾이 於我何加焉이리오 爲宮室之美와 妻妾之奉과 所識窮乏者得我與인저 鄉(曩)爲身엔 死而不受라가 今爲宮室之美하여 爲之하며 鄉爲身엔 死而不受라가 今爲妻妾之奉하여 爲之하며 鄉爲身엔 死而不受라가 今爲所識窮乏者得我而爲之하나니 是亦不可以已乎아 此之謂失其本心이니라《맹자 고자상》

會友錄序

遊乎三韓三十六都之地하니 東臨滄海하야 與天無極하고 而名山巨嶽이 根盤其中이요 野鮮百里之闢하고 邑無千室之聚하니 其爲地也 亦已狹矣로다

삼한 36도의 땅을 돌아보니 동쪽으로는 푸른 바다를 마주하여 하늘과 함께 끝이 없고 이름난 산과 커다란 산악이 그 가운데 서려 있으며 들에는 백 리가 트인 곳이 드물고 고을로는 천 가구가 모인 곳도 없으니 지역의 규모가 아주 좁다 할 것이다.

非古之所謂楊墨老佛而議論之家四焉이요 非古之所謂士農工商而名分之家四焉이니 是惟所賢者不同耳어늘 議論之互激而異於秦越하고 是惟所處者有差耳어늘 名分之較畫而嚴於華夷하야

그런데 이른바 양주나 묵적, 노자나 불교가 아닌데도 의론하는 학파가 넷이고(노론, 소론, 남인, 북인의 사색당파), 옛날의 이른바 사·농·공·상이 아닌데도 명분이 다른 유파가 넷이다(사당인, 비사당인, 중인, 서족). 이들은 단지 어질다 여기는 것이 같지 않을 뿐인데 의론이 서로 부딪쳐 마치 진나라와 월나라만큼 멀어졌고 단지 처지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도 명분이 비교하고 따지는 사이에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보다 엄격해졌다.

嫌於形跡하니 則相聞而不相知하고 拘於等威하니 則相交而不敢友하니 其里閈同也요 族類同也요 言語衣冠 其與我異者幾希矣어늘 旣不相知하니 相與爲婚姻乎며 不敢友焉하니 相與爲謀道乎아 是數家者 漠然數百年之間秦越華夷焉하되 比屋連墻而居矣하니 其俗又何其隘也오

자취가 드러날까 꺼리게 되어 서로 소식을 들으면서도 알고 지내지는 않고 등급과 위엄에 구애되어 서로 교류하면서도 감히 사귀지는 못하니 사는 마을도 같고 종족도 같고 언어와 의관도 나와 다른 것이 얼마 안 되는데도, 이미 서로 알고 지내지 않으니 서로 혼인인들 하겠으며, 감히 서로 사귀지 못하니 도를 함께 도모하겠는가? 이 몇 유파가 아득히 수백 년 동안 진나라나 월나라, 중화와 오랑캐처럼 살면서 집을 나란히 하고 담장을 연이어 살고 있으니 그 풍속이 또 어쩌면 그렇게도 협애한가.

洪君德保 嘗一朝踔一騎하야 從使者而至中國하야 彷徨乎街市之間하고 屛營於側陋之中이라가 乃得杭州之遊士三人焉하야 於是에 間步旅邸하야 歡然如舊하야 極論天人性命之源과 朱陸道術之辨과 進退消長之機와 出處榮辱之分할새 攷據證定이 靡不契合이요 而其相與規告箴導之言이 皆出於至誠惻怛하야 始許以知己라가 終結爲兄弟하니 其相慕悅也如嗜欲하고 其相無負也若詛盟하야 其義有足以

感泣人者하니

홍군 덕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말 한 필을 달려 사신을 따라 중국에 가서 저잣거리를 헤매고 지저분한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항주에서 유람 온 선비 세 사람을 만나 곧바로 틈을 내 여관에 가서 마치 옛 친구처럼 기뻐하여 하늘과 사람, 성명의 근원과 주자와 육상산 도술의 차이와 진퇴와 소장의 기회와 출처와 영욕의 구분에 대해 극진히 이야기하였는데, 고증하고 증명함에 서로 꼭 맞지 않음이 없었고 서로 바로 잡아주고 이끌어 주는 말이 모두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에서 나와 처음에는 서로 지기로 허락하였다가 마침내는 결의하여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 흠모하고 기뻐하기를 마치 욕심 부리는 듯하고 서로 등지는 일이 없기를 마치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 같아서 그 의리가 사람들을 감읍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嗟呼라 吾東之去吳幾萬里矣며 洪君之於三士也에 不可以復見矣어늘 然而向也에 居其國則同其里閈而不相知라가 今也엔 交之於萬里之遠하고 向也에 居其國則同其族類而不相交라가 今也엔 友之於不可復見之人하고 向也에 居其國則言語衣冠之與同而不相友也라가 迺今猝然相許於殊音異服之俗者는 何也오

아, 우리나라는 오나라와의 거리가 몇 만 리나 되며 홍군이 세 선비와 다시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자기 나라에 있을 때에는 마을을 같이하고 살면서도 서로 알고 지내지 않더니 지금 만 리 밖의 먼 곳에서 서로 사귀고, 지난번에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같은 종족이면서도 서로 사귀지 않더니 지금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을 벗으로 대하고, 지난번에 자기 나라에 있을 때에는 언어와 의관이 같아서 서로 벗으로 사귀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말과 복식이 제각기 다른 풍속의 사람과 서로 허락함은 어째서인가?

洪君愀然爲間曰 吾非敢謂域中之無其人而不可與相

友也요 誠局於地而拘於俗하야 不能無鬱然於心矣라 吾豈不知中國之非古之諸夏也며 其人之非先王之法服也리오

홍군이 근심스러운 기색으로 잠시 있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감히 우리나라 안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서로 사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처지에 국한되고 풍속에 얽매여 마음에 맺힌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 어찌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 아니며 그 사람들이 선왕의 법복을 따르지 않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雖然이나 其人所處之地 豈非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所履之土乎며 其人所交之士 豈非齊魯燕趙吳楚閩蜀博見遠遊之士乎며 其人所讀之書 豈非三代以來로 四海萬國極博之載籍乎아 制度雖變이나 而道義不殊하니 則所謂非古之諸夏者 亦豈無爲之民而不爲之臣者乎리오

“비록 그러하나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어찌 요·순·우·탕·문·무·주공·공자가 디디던 땅이 아니겠으며 그 사람들이 사귀는 선비가 어찌 ·제·노·연·조·오·초·민·촉에서 널리 배우고 멀리 노닐던 선비가 아니겠으며 그 사람들이 읽는 글이 어찌 삼대 이래 사해만국의 지극히 많은 서적이 아니겠습니까? 제도는 비록 바뀌었지만 도의는 달라지지 않았으니 이른바 옛날의 중국 아닌 곳인들 또한 어찌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신하가 되지 않는 일이 없겠습니까?”

然則彼三人者之視吾도 亦豈無華夷之別而形跡等威之嫌乎리오 然而破去繁文하고 滌除苛節하며 披情露眞하고 吐瀝肝膽하면 其規模之廣大 夫豈規規齷齪於聲名勢

利之道者乎아 迺出其所與三士譚者 彙爲三卷以示余曰 子其序之하라하니

“그렇다면 저 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또한 어찌 화이의 차별과 자취나 등위의 혐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번거로운 문식을 깨뜨려버리고 까다로운 예절을 씻어내며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내보이고 간담을 토해내니 그 규묘의 광대함이 어찌 명성이나 세리를 얻는 방도에 악착같이 얽매이는 이들이겠습니까.”
마침내 세 선비와 이야기한 것을 엮어서 세 권으로 만든 책을 꺼내 나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서문을 써 주시오.”

余旣讀畢에 而歎曰 達矣哉라 洪君之爲友也여 吾乃今得友之道矣와라 觀其所友하고 觀其所爲友하며 亦觀其所不友하나니 吾之所以友也로다

내가 다 읽고 나서 이렇게 감탄하였다.
“크도다, 홍군이 벗을 사귐이여! 내 이제 비로소 벗을 사귀는 도리를 알았다. 그가 벗으로 사귀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가 누구의 벗이 되는지를 살펴보며, 또한 그가 벗으로 사귀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벗을 사귀는 방법이다.”